

2025
JULY

7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6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1 COVER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울산 UECO 9월 20일 개최

02 FOCUS

변화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새로운 지평을 열다

05 INTERVIEW

대한조직세포감사학회
소선거 학회장

제510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디자인 서경아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울산 UECO서 9월 20일(토) 개최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정확한 진단과
미래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에
임상병리사

2025
KAMT
ULSAN

일시 2025년 9월 20일(토) ~ 21일(월)

장소 울산광역시 유에코



주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후원 울산광역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남상열)가 주관하며 한국관광공사,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중소병의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토요일(9월 20일)과 일요일(9월 21일) 개최된다.

협회는 현재 3차 전시부스 신청을 받고 있다. 3차 신청 기한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기존 의료기기 업체에 발송된 공문에 첨부된 전시회 참가신청 및 계약서와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 동의서를 작성, 날인해 이메일(kamt-congress@naver.com)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전시부스 위치 배정을 위한 추첨식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종합학술대회 초록집 광고와 기타 광고 신청을 받고 있다.

초록집 광고의 경우, 현재 표2, 표3, 표4 광고는 마감되고 내지 광고만 남은 상태로 신청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광고 시안 제출 마감은 8월 5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초록집 광고 신청 및 계약서를 작성, 날인해 이메일(kamt-congress@naver.com)로 발송하면 된다.

기타 광고로는 접수데스크 하단, 포토존 업체 CI 등 광고에 더해 새롭게 **무대 LED 동영상 홍보 광고와 무대 홍보 광고가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광고 두 가지는 전시장 무대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 형식이다. 기타 광고 신청 기한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기타 광고 신청 및 계약서를 작성, 날인해 이메일(kamt-congress@naver.com)로 발송하면 된다.

전산 서버이전 작업으로 홈페이지 접속 불가
2025년 7월 14일(월)~18일(금)

2025
제 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ULSAN
울산
초대합니다
일시: 2025.9.20(토)~21(월)
장소: 울산광역시 유에코
주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울산광역시

변화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새로운 지평을 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의료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적절한 의료 서비스 공급조직의 모습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및 디지털화,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의료 공급 체계로는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변화의 핵심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적 변화로서 고령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보건학적인 변화로 만성질환이 있다.

이런 변화에 중심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최고의 성장동력은 빅데이터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인의 질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기에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감소, 의사의 오진을 최소화 등이 가능하므로 환자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의 보조수단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로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로 접근이 제한적이고 의료데이터의 개방성이 낮다. 그러나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방향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의료데이터의 개방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커질 것이며 의료데이터의 개방에 대비한 높은 보안도 더욱더 절실해질 것이다.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과 임상병리사의 역할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전 세계는 의료 비용 상승과 품질 개선, 환자 만족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제약과 규제가 있기에 넘어야 할 제반적인 문제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라이프로그(Life Log)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예방 및 진단, 치료와 사후 관리의 총체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라이프로그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정보화를 기반으로 진료 효율을 높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개인 맞춤형 의료 구현을 목적으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래 의료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보급, AI 기반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수집이 쉬워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술 역시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단계는 데이터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경제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방대한 의료용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가적 차원의 건강관리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산물로 향후 의료대상자가 일상생활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생성해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데이터를 창출한 후 플랫폼으로 통합할 경우, 4P의료인 예측(predictive)·예방(preventive)·정밀(personalized)·참여(participatory) 중심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검사실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중요한 것을 뽑아 유기적으로 조합 및 연결하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 진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비한 AI에 기반한 새로운 진단(CDSS 등) 및 치료기술이 임상진료에 적용될 경우 의료의 질 향상 및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분야가 될 것이다.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의 줄임말은 CDSS는 우리말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환자로부터 얻어진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인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질병의 예방 선별, 진단, 치료, 추적 관찰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임상 진단검사를 예로 들면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검사를 의뢰했을 때 적절한 임상검사를 CDSS가 조언해 줄 수 있고, 다양한 임상검사의뢰 데이터 중 유의미한 검사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의료에서 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

사결정의 70%가 임상검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임상검사 결과치는 대부분 정량적 데이터로 이미지나 텍스트 기반 데이터에 비하여 각 각의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임상검사 데이터를 통합 및 활용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로서의 활용 가치와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검사실은 AI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개별데이터 QI 검증과정이 중요하며 검사결과치의 정확도를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일치화(Harmonization)를 통하여 다수의 임상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통합이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임상검사실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고품질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검사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미래 의료와 데이터사이언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과 디지털 헬스케어 - ‘With 임상병리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만성질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면서 오래 끌고 잘 낫지 아니하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건강 수명의 연장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헬스케어는 최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경제협력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78억 명 중 15억 명 이상의 환자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질병 발생 중 50% 이상이 단순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충분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지원되면 ‘With 임상병리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노령층의 만성질환과 신체기능 저하 등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밀착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기에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상병리사의 방문건강 관리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 임상병리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돌봄의료 수요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확장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08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6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0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7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부장 26명 중 16명, 총원 45명 중 33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관련 사무국 실무자 및 컨벤션 회 회의 진행, 2025년 제509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2027년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선정 관련, 사무국 직원 관련 보고, 농협아너스 MOU 체결 관련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특수 및 진폐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폐기능검사·판정교육 대행 용역 선금 지급, 회의 식비 초과 내역 보고 ▲학술부 종합학술대회 진행의 건, 2025년도 편집위원회 워크숍 실시의 건, 2025년도 대한임상검사과학회 IMPACT SEMINAR, 2025년도 제2회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논문경진대회 ▲교육부 제3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 제2차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 회의, 제4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분과학회 온라인 보수교육 강사 추천 및 온라인 보수교육 지원금 지급의 건 ▲국제부 제47회 태국학회 참가 보고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5월호 발행의 건, 오진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병리협보 인터뷰의 건, 전국 임상병리(학)과 학생 이벤트 기획의 건, SNS 홍보의 건, 보도자료 및 축사 작성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보고의 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의 건, 협회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건, AI상담센터 운영의 건, 5월 앱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2025 메타버스 엑스포 참가의 건, 2025 메타버스 엑스포 기념품 제작의 건 ▲법제부 법제위원회 위원 추가 보고 ▲정무부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긴급 점검회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정책 협약식(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참석의 건 ▲대외협력부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2025년 공단전문강사 워크숍 진행, 공익신고 위원회 5차 회의,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 4차 회의, 무면허 의료행위 협회 홈페이지 신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2025년 제4차 보험부 회의(제3차 채혈료산정 소위원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KMI 한국의학연구소 업무협약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통과됐고 기타 토의 후 제508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16개 시도회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워크숍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6월 14일(토) 오후 1시 용산역 ITX-6 회의실에서 16개 시도회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전국 시도회 회장, 중소병의원이사, 대표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워크숍은 김한규 기획부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병의원(최병호 사업부회장) ▲기획진단 AI로 여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안저기반 심혈관 AI 평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민 교수) ▲중소발전위원회 문의사항 공유 -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및 Q&A 내용(정옥희 중소병의원이사) ▲공익신고위원회 무면허 채용공고(조정숙 중소병의원부장) 발표가 진행됐고 ‘불법의료행위 신고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논의’와 ‘간호법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자유토론 후 워크숍을 마쳤다.



2025년 제47회 태국학회 참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5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7회 태국학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회에는 송기선 학술부회장, 최병호 사업부회장, 장성호 교육이사, 김선희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송기선 학술부회장은 IFBLS BOD 자격으로 참여했다.

협회 대표단은 한태대표자회의를 통해 종합학술대회 홍보와 교차트레이닝 등 양국 임상병리사협회의 안건을 다뤘고 ‘정밀의료로 앞서는 건강: 의료기술의 미래(Advancing Health with Precision: The Future of Medical Technology)’를 주제로 개최된 학회에 참가하며 양국 임상병리사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관련 회의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6월 18일(수) 오후 4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관계자를 만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협회 최병호 사업부회장, 정옥희 중소병의원이사, 안영 보험부장,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지민 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검진기관관리부 김태희 부장, 검진지원부 변창오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과 실시한 정책간담회 후속으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검진기관에서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시행 가능한 조치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협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제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의견 개진 중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협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 및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공단개설 요건에 대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회의는 9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MVEX 2025' 참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6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된 'MVEX 2025(메타버스 엑스포)'에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현장진단검사(POCT, Point of Care Testing)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중앙회 고인철 정무이사, 정옥희 중소병의원이사,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과 경기도회 문기춘 사업부회장, 김성민 정보통신이사, 유주연 사무국장,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이희정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흘간 관람객 1,000여 명에게 POCT 장비를 이용해 ▲혈압 검사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제공했으며 이들 중 354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임상병리사 직역 및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인식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광우 협회장은 "이번 MVEX 2025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화성특례시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임상병리사가 환자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검사 서비스의 가능성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협회는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있는 화성특례시의 지원으로 이번 엑스포에 참가했다. 현재 경기도회는 포천시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에서 만성질환 예방교육 및 간이 혈당기 정도관리와 수원특례시 장안구보건소 '혈당 체크업! 경로당 건강업!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혈당기기 정도관리 및 혈당검사(당화혈색소)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회 동정

- 6월 2일 재건축 적정성 평가 중간보고
- 6월 7일 보험부 회의
- 6월 10일 중소병의원부 회의
학술부 회의
- 6월 12일 정보통신부 회의
제508차 상임이사회
- 6월 14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워크숍
16개시도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워크숍
- 6월 18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
MVEX 2025 참가(~ 6월 20일)
- 6월 23일 제3차 학제일원화 TF 회의
- 6월 24일 학술부 화상회의
- 6월 25일 제휴카드 회의
- 6월 28일 제6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선거 학회장을 만나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을 공개하면서 PA 업무에 따른 자격에 대한 부분이 공론화됐다. 현재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인정 자격제도가 법제화된다면 협회 역시 PA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의 분야별 전문자격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본지는 전문임상병리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중인 소선거 학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병리과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자 현재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제18대 학회장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영광을 느끼며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 소선거입니다. 임상병리사로서 병리과에 몸담은 지 29년, 그중 많은 시간을 조직세포검사 분야의 발전에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은 항상 배움의 연속이었고, 검체 하나하나에 담긴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Q. 이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장 임기의 반환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셨는지요?
A. 학회장으로 취임하며 '직무역량 강화, 학술 연구의 질적 도약, 소통하는 학회'를 목표로 세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현미경 강의 전용 교육장을 개설했습니다.

둘째, 회원과의 소통을 위한 소식지 HEPa를 창간했습니다. 학회 소식지에는 교육 일정, 정책 안내, 회원 인터뷰 외에도 병리 진단 트렌드, 검사실 운영 노하우, 연구 동향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연 2회 정기 발간하며, 회원 간 지속적 학습 분위기 조성 및 검사실 간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셋째, 조직과 장기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현미경 조직 진단 강의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학회의 핵심 가치인 '병리사의 전문성, 병리학적 사고의 체계화, 실무 연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Q.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의 강점과 매력은 무엇인가요?

A. 우리 학회는 병리 진단의 정확성과 병리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직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등 세 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산하 학회 중 유일하게 실습 교육장 개념의 현미경 강의실을 보유한 학술단체입니다.

조직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조직병리, 특수염색, 면역병리, 분자병리 전반에 걸친 전문교육을 수행하며,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세포검체의 판독 및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주도합니다.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절제 검체의 육안검사, 기록, 샘플링 전문화를 통해 병리 진단의 출발점에서 전공의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구조는 병리 진단의 실제 흐름과 직무 역량에 기반한 체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다른 학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조적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현장 경험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과 동료 간의 사례 공유, 병리전문 의와의 협업 기회를 얻고 있으며, 이는 학문적 성장은 물론 임상적 전문성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변화하는 의료환경의 변화로 빅데이터와 AI로 복잡해지는 디지털병리로 전환되는 시기를 앞두고 임상병리사가 준비해야 할 방안과 새로운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최근 병리 분야는 디지털병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진단 기술의 도입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임상병리사에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병리 슬라이드의 디지털화(WSI), AI 기반 조직·세포 분석, 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병리과의 업무도 수기 중심에서 분석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디지털병리 시대에 맞춘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활용 교육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세포, 면역, 분자 각 분야별 디지털 전환 교육을 확대하며, '디지털병리 전문임상병리사'와 같은 교육 이수 인증제를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실습-인턴십 기반도 구축하여, 디지털병리 기업, 병리전문의, 공공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병리사는 병리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과 슬라이드 스캔 장비에 대한 이해, 병리 데이터의 구조와 표준화 개념을 익혀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병리AI 기업이나 헬스케어 스타트업, 병리 빅데이터 분석 인력, QA/QC 매니저 등으로 진출하여 의료기관을 넘어선 경로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Q.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이었나요?

A.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세포병리검사 중 세포선별검사의 시행 주체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현재 병리과에서 세포선별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정 임상병리사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체계적 교육을 이수한 세포전문임상병리사와, 대한세포병리학회 산하 세포병리사회 소속 세포병리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리질관리 심사 항목에 '세포병리사가 세포선별검사를 실시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현장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은 본인의 자격과 역할이 배제되거나 왜곡되는 것에 대해 큰 혼란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리검사실의 운영, 전문임상병리사 제도의 제도화, 나아가 회원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와 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리질관리 심사의 주체인 대한병리학회와 협의하여, 현장 실태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보완 및 세포선별검사 자격 기준의 명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조가 어렵다면, 정부 및 보건당국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식지, 홈페이지, 학술대회, SNS 등을 통해 관련 정책과 대응 방안을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회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 채널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질관리 심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임상병리사의 정당한 역할과 자격이 인정받는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전문성을 지켜주시고, 학회는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실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 끝으로 임상병리사의 미래가치 비전과 미션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학회가 제시하는 임상병리사의 비전과 미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 기반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도의 기술력과 임상적 감각을 겸비한 의료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추구합니다.

셋째, 직업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각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의료팀 내에서 진단과 치료의 파트너로 기능하며, 개인맞춤형 의료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이러한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 강화와 학술 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https://pr.seegenemedical.com/>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귀 병원의 진료가 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으로 진출합니다!”

해외의료 국제협진과 PPCC (Pre Post Care Center)

(재)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해외 메디컬 센터를 기반으로,
한국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진이 협력하여 해외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자흐스탄 의료 국제협진 특징점

- 01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운영
- 02 최첨단 의료장비 완비 (MRI, CT, 내시경, 진단검사의학 · 분자진단 · 병리 검사 등)
 - MRI 3.0T (중앙아시아 최초 도입)
 - CT 256 슬라이스 (카자흐스탄 최초 도입)
 - 내시경 검사
- 03 안정적인 해외 환자의 진료와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

PPCC (Pre Post Care Center, 사전 · 사후관리센터)

- 해외 환자 진료 및 관리 프로그램 -

사전 관리 Pre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 기초 검사 및 진단 실시
- 통역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한국 진료 및 치료 위한 준비 지원

국제협진

진료 장소
〈한국〉 협력 의료기관

- 공동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시설 및 인력 · 장비 공유

사후 관리 Post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 치료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 상태 공유
- 필요 약물 및 재활 치료 현지 제공

• 해외의료 국제협진 협력 : 오픈헬스케어(주) ☎ 02-2114-8011 🌐 <https://www.ohc.global> ✉ ohc@ohc.global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오픈헬스케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의료 해외진출 · 해외환자의 국내유치**에 힘쓰고 있고, **한국의료기관과 해외환자의 진료를 위해 오픈헬스케어와 협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SMF Central Laboratory
(2025. 8월 준공 예정)



부산경남검사센터
Busan Laboratory Center



대구경북검사센터
Daegu Laboratory Center



광주호남검사센터
Gwangju Laboratory Center



대전충청검사센터
Daejeon Laboratory Center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Almaty
(Kazakhstan, Almaty)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칼 센터 LA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LA
(USA, Los Angeles)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칼 센터 하노이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Hanoi
(Vietnam, Hanoi)



디지털헬스케어 새로운 지평을 열다 - 홀터를 넘어 웨어러블 심전도의 혁신 “노태호바오로내과 부설 모비케어 카디오랩 김여진, 나선옥 임상병리사를 찾아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6월 10일 협회로 ‘임상병리사 김여진입니다’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김여진 임상병리사는 노태호바오로내과 홀터실(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로 웨어러블 심전도(장시간 모니터링)를 주로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여진 임상병리사는 함께 근무하는 나선옥 임상병리사와 함께 지난달에 노태호 교수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과 공동 집필한 ‘홀터를 넘어 웨어러블 심전도의 혁신’이란 책을 출간하였다며 현재 웨어러블 심전도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문 분야이기에 관심이 있는 임상병리사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리협보 제작팀은 내부 논의 끝에 심전도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시행 주체이며,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심전도 검사는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진료보조 업무가 아닌 임상병리사의 독자적인 업무에 하나입니다. 특히, 검사 결과 판독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패치를 부착하거나 작동 버튼을 누르고 검사 결과를 출력하는 행위 또한 심전도 검사의 보조행위가 아니라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본질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을 7월호에 기획취재로 다뤄 보기로 했습니다.

병리협보 취재팀은 노태호바오로내과 부정맥 판독센터와 일정을 잡고 노태호 교수님과 부정맥 판독센터 김여진 실장님, 나선옥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의사들이 내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길 바라지 않았다. 단 5분 만이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한 번이라도 그들과 내가 교감하고, 나의 신체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신도 위로받으며,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대하지 않고...나의 마음까지도 살펴봐 주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나는 그저 하나의 질병에 지나지 않는다’(미 심장학자 버나드 라운)라는 글이었는데 임상병리사도 업무에 임할 때 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노태호 교수님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는데 아마 심전도나 심장초음파 업무를 보는 분은 노태호 교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독자 196만 명인 의학 채널 비온뒤에 심장 및 부정맥 분야로 강의하는 유명한 분이고, 전 대한심장학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와 가톨릭중앙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을 끝으로 현재는 가톨릭의과대학 명예교수와 노태호바오로내과 부정맥 판독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노태호 교수님은 반갑게 취재팀을 맞이해주며 심전도의 중요성과 부정맥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태호 원장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과 심장동맥 질환을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 방법이고, 타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검사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심장 환자들의 경과를 관찰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 12유도 심전도를 비롯하여 운동 부하 심전도와 활동 중 심전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심전도를 보고 심장 전기현상의 이상을 판단하는 과정, 즉 심전도 판독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노태호바오로내과 부정맥 판독센터에는 12명이 근무하는데 그중 11명이 임상병리사이고 매주 화요일마다 심전도 콘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증례를 공유하며 교육과 양성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퍼런스 외에도 심전도 퀴즈, QI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그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부정맥 판독센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심전도 검사 패러다임은 디지털헬스케어의 발달로 전통적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맥 진단의 기본인 심전도는 이미 병원을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패치 심전도, 이벤트 기록 심전도, 위치 심전도, 반지형 심전도 모니터 등 다양한 모바일 심전도의 형태로 발전해 공간을 뛰어넘어 부정맥의 조기 진단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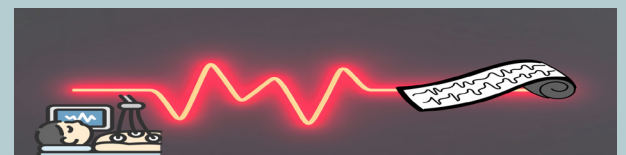
나선옥 팀장, 김여진 실장

원격 환자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환자모니터링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수집하여 보내주면 부정맥 판독센터에서 심전도 파형을 임상병리사가 분석하면 부정맥 전문가가 검토하여 최종리포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1일 보통 1명의 임상병리사가 30명 정도의 심전도 파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접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의뢰된 심전도 파형만 분석하는 업무는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는 모비케어의 편리성과 우수한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으로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패치의 플랫폼인 씨어스의 모비케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가볍고 착용이 간편한 패치 형태의 웨어러블 심전계를 이용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노태호바오로내과 부정맥 판독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리미엄 분석서비스를 통해 부정맥 전문가가 감수한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어 부정맥 전문가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심전도 검사기인 홀터는 고가의 구매 비용과 유지, 보수 부담이 크고, 착용한 환자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단점이 있던 것에 비하면 효용성이 크기에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점도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이기에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임상병리사는 도전해볼만 하다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부정맥학회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심방세동 환자의 유병률 및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80세 이상 고령층의 유병률이 13%, 60세 이상에서는 5.7%로 보고돼 국가건강검진에 심전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기에 심전도 검사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일자리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확장해 나아가 한다는 마음이 취재하는 동안 들었습니다. 끝으로 노태호 교수님에게 대한심장학회에서 임상병리사들의 심전도, 심장초음파 전문성 강화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5년 중소병의원 워크숍 및 정책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5월 24일(토) 오후 2시 농심호텔 크리스탈 홀에서 2025년 중소병의원 워크숍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중소병원 진단검사실 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안(QuidelOrtho 이성호) ▲중소병원 면역진단장비 원내도입시 타당성검토 및 고려사항(바디텍메드 이민호) ▲임상화학 이상결과 사례(바이오시스템즈 이선희) ▲5주기 검진기관 평가 소개 및 질의(강종원 사업부회장)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정책 강연으로 ▲협회 미래 정책방향(중앙회 이광우 협회장)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병의원(중앙회 최병호 사업부회장)이 이어졌다.

2025년 제2회 해피투게더 사업 실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5월 20일(화) 제2회 해피투게더 사업을 실시했다. 해피투게더 사업은 회원과의 소통으로 유대관계를 확대하고 업무 및 새로운 정보를 교류, 중앙회 및 부산시회에 건의사항 및 정책을 제안하는 회원의 목소리 경청 및 반영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해피투게더 사업으로는 동의의료원을 방문, 인근 병원에 근무하는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학술부 회의 실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6월 3일(화) 부산 남구 일대에서 학술부 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2025 상반기 사업 경과보고와 하반기 사업 논의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가 5월 24일(토) 전남대학교병원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서정훈 회장의 인사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의 축사로 시작한 이번 보수교육은 ▲헌혈에서 수혈까지(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김대원) ▲실수없는 채혈, 이렇게 한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유광철) ▲병



리검사의 최신트렌드 및 경향(삼성서울병원 지우현) ▲인지장애와 신경심리검사의 이해(영남대학교병원 문성식) 등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임상

생리학 모든 분야를 다뤘다. 또한, 중소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해 5주기 검진기관평가 길라잡이(대한산업보건협회 최용진) 교육을 별도로 실시했다.

서정훈 회장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광주시회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준비하였는데 만족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보수교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시는 중소병의원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한 강의가 첫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여 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찬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다섯 분의 강사님들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준 광주시회 임원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광주시회 모든 임원진은 교육을 수강하시는 모든 회원들께서 부족함 없이 알찬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프로야구 관람 문화행사 실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5월 27일(화) 오후 6시 30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롯데자이언츠 경기에 대구시회 회원, 가족, 동료를 초청해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 간 친목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준비된 문화행사로 대구시회는 닭강정 등 간식을 제공하며 회원들의 원활한 경기 관람을 위해 노력했다.

대구시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분들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임상병리사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문화의 날 행사 실시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권지연)가 5월 28일(수) 대전 문화동에 위치한 CGV에서 문화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110여 명의 대전시회 회원들이 참가한 이번 문화의 날 행사에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함께 관람했다.



대전시회는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육아와 학업 등으로 여가 생활을 따로 즐기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문화생활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회원들 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매년 문화의 날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회는 영화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중이다.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보수교육 실시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이상훈)가 5월 31일(토) 11시 천안축구센터 소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충남도회 집행부 18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여비규정’ 개정의 건, ‘감사여비규정’ 개정의 건, ‘문서관리규정’ 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이어 충남도회는 오후 1시 30분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 A에서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206명이 참가한 이번 보수교육은 ▲NGS검사의 이해와 실제(서울의과학연구소 유재승)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세포검사와 자궁절제술 검체의 병리학적 연관성(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최병일) ▲혈액은행에서 발생하는 Problem Case Review(아주대학교 병원 조현수) ▲폐기능검사의 이해 및 주의사항(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재심) 등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됐다.



16개 시도회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워크숍 참석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이상훈 회장과 송승현 중소병의원이사, 김희숙 정무이사가 6월 14일(토) 오후 1시 용산역 ITX-6 회의실에서 개최된 16개 시도회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안산대학교와 실무중심
인재 양성을 위한 MOU 체결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가 5월 29일(목) 안산대학교 본관 비전룸에서 임상병리사 실무중심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회 유광철 회장, 최종열 학술부회장, 문기춘 사업부회장, 이석정 총무이사, 최경호 홍보이사와 안산대학교 운동열 총장, 임상병리학과 강윤정 학과장 및 교수진, 전미라 산학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양측은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 지원 ▲학술 세미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안산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1981년 신설되어 40여 년간 역량이 뛰어난 졸업생을 배출해 왔으며 최근 2년 연속 국가고시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다양한 최신 기자재를 구비하는 등 교육지원 여건이 우수해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운동열 총장은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건계열이 약진하는 가운데 명실공히 학내 No.1 학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본교 학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철 회장은 “실무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협력이 양 기관에 큰 시너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임상병리사들이 졸업 후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즉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교두보 역할을 견고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김창수)는 6월 14일(토) 오후 1시 30분 청주대학교 보건 의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에



는 중앙회 이도왕 공보 부회장이 함께해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 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유세포 분석 기초 원리와 검사방법(쥬안세 이보경) ▲CBC 이상결과 보고관리(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문세훈) ▲이상검사결과 사례로 배우는 임상화학의 정도관리(서울삼성병원 이승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관리(서울삼성병원 홍성철) 등 주제로 진행됐고 또한 보수교육 중에는 참여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채혈 실무교육 실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박진영)는 5월 24일(토) 오후 2시에 마산대학교 임상 병리학과 교육센터에서 채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남도회 회원들과



지역 대학교인 마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김해대학교 임상 병리(학)과 학생을 포함한 60여 명이 참석했다.

실무교육에 앞서 채혈에 대한 이론교육이 실시됐고 이후 7개 그룹을 역량 별로 나눠 실무 강사들의 지도로 채혈

실습을 진행했다. 박진영 회장은 채혈 실무교육 수료증 수여식에서 “미래의 임상병리사가 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채혈 기법을 교육하고, 회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실무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초음파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5월 24일(토) 오후 3시, 경북보건대학교 목관인 시청각실에서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임상병리사들의 실무 능력 향상과 최신 학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총 4개의 전문 강의와 보건복지부 면허신고 필수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임상미생물 검사의 정도관리(포항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 미경) ▲재채혈된 검체를 이용한 허용 Hemolysis Index에 대한 연구(경북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홍범) ▲Digital Health Care와 생리학 검사(대경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김효신 교수) ▲면역진단검사 실무(경산중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소현) 등 현장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보수교육 이후에는 면허신고 필수교육을 비롯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차기 교육에 대한 희망 분야 설문조사도 실시돼,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앙회 이도왕 공보부회장이 참석해 지역돌봄의료와 현장검사에 대한 협회 정책을 소개했고, 울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9월 20일~21일) 홍보를 위해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에서 함께 하며 대회의 취지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조대현 회장은 “현장 중심의 보수교육을 통해 경북도회원 여러분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활동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도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경북도회는 앞으로도 중앙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CASSETTE MATE



COMPACT SIZE

컴팩트한 사이즈로 인해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 ▶ 무게 : 12.5 Kg (hopper 500 g) ▶ 필요동력 : AC 85~264v / 5V, 50/60 Hz
- ▶ 크기 : 190*305*330 mm (호퍼 포함 높이 460 mm)



REDUCE OPERATIONAL COST

레이저 마킹 기술을 사용하여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 인쇄속도 : 1개 4.5초 (50개 기준 QR코드 포함 글자 15자 - 4분내외)
- ▶ 최대 수량 : 50 cassette ▶ 레이저 파워 : 3 W



EASY TO USE

작동법이 단순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LOW WORK NOISE

소음(<65dB)이 적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현일랩메이트 // HYUNIL LAB MATE
전화 1577-6255 | 팩스 02-332-1974
이메일 support@hyunil-lab.com
홈페이지 www.hyunil-lab.com



HYUNIL LAB MATE
홈페이지



CASSETTE MATE
홈영상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2025년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 개최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에서는 전문임상병리사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회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해 2025년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25. 08. 09.(토) 09:00 ~ 13:00

나. 장 소 :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2층 강의장 (100명)

다. 등록기간 : 2025. 07. 09.(수) ~ 2025. 07. 31.(목) [현장등록 없음]

라. 평 점 : 전문임상병리사 4평점

마. 등 록 비 : 수혈전문임상병리사 4만원

바. 등록방법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www.kamt.or.kr)

보수교육-[임상수혈검사학회]2025년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 사전등록
사. 강의내용

시간	강의 내용	강사
09:00~10:00	In hospital support of cell and Gene therapy	성균관외대 조덕 교수
10:00~11:00	겸상적혈구에서의 혈액공급관련 이슈	국립중앙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혜련 전문의
11:00~12:00	국내정도관리 물질제조 및 SNUH 수탁검사 증례	서울대학교병원 강지상
12:00~13:00	수혈전문임상병리사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서울동부혈액원 김진욱

아. 문의

실무위원장: 김진욱(서울동부혈액원), jinugy@redcross.or.kr

간사: 신건식(대한적십자사), ccamtangi@redcross.or.kr

◆ 필독사항

1. 명시된 사전등록기간 외에 연장등록은 없습니다.
2. 등록만 하시고 불참할 시에는 평점 이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환불은 사전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임상수혈검사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실시

“POCT 운영과 요검사 자동화 전략을 주제로 실전 중심 학술 교류의 장 마련”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회장 이승모)가 5월 24일(토)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POCT의 실전 운영과 요검사 자동화 장비 활용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과 자동화 장비 활용 전략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POCT 운영 실무 경험(세브란스병원 서정민) ▲POCT 장비 신



뢰도 평가와 실무 활용 전략(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애리) 등 실전 사례와 장비운영 노하우를 공유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로슈진단(Roche Diagnostics), 지멘스 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 시스멕스(Sysmex Corporation) 세 업체가 참가해 각 사의 요침

사 자동분석 장비를 소개하고, 기술적 특성과 임상적 장단점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학회 조성식 자문위원이 ‘현미경적 혈뇨와 변형적혈구 형태 판정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실제 임상 사례 기반의 해석과 판정 기준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학회 시작에 앞서 이승모 학회장은 “급변하는 헬스케어 환경에서 POCT와 자동화 기술은 임상화학검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지향적인 검사실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오는 11월 1일(토), 동일한 장소인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과 업무 협약 체결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가 5월 20일(화)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과 미생물 감염 검사 분야의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황유연 회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과 건양대 이무식 보건복지대학원장, 김영권 교수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미생물 감염 검사 관련 학술 교류, 기관 홍보 협력, 학술정보 및 간행물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향후 감염병 대응과 진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제13회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실무워크숍(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평점 4점)이 오는 8월 30일(토)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일원역캠퍼스 B동 9층 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미생물 신속 진단검사’를 주제로, 세균·바이러스·내성유전자 등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신속 진단검사 기법을 소개하고, 간단한 실습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진단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접근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최신 진단 기술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회는 또한, 6월 21일(토)부터 8월 30일(토)까지 삼성서울병원 본관 중강당1에서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수련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교육은 임상미생물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련교육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미생물 진단 검사법과 감염관리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국의 임상병리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회는 본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하화정 자문위원, '2025 IAC Cytotechnologist of the Year' 수상



세포병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상인 'IAC Cytotechnologist of the Year Award in Clinical Cytology'의 2025년 수상자로 하화정 자문위원(Prof. Hwa Jeong Ha, Ph.D, CFIAC)이 선정됐다.

국제세포학회(International Academy of Cytology, IAC)는 전 세계 세포병리학자의 학문적 발전과 국제보건 기여를 인정해 매년 탁월한 교육·연구 활동을 펼친 인물에게 이 상을 수여해 왔다.

하화정 자문위원은 지난 5월 이탈리아 피렌체(Firenze)에서 개최된 제22회 국제세포학술대회(ICC 2025)에서 금메달과 상금을 함께 수상했다. IAC는 공식 발표문에서 “이번 수상은 세포학에 대한 평생의 헌신, 교육과 연구, 봉사를 통해 이뤄낸 위대한 공헌을 기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1975년 제정된 이 상은 지금까지 단 14개국, 48명의 세포병리 전문가만이 수상했으며,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수상이자 여성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하화정 자문위원은 시상 직후, Chair, IAC Registrar인 Donna K. Russel, M.Ed, CFIAC와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세포병리 교육이 절실한 세계 각지에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 세포병리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병리과에서의 40여년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동남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하화정 자문위원은 국내외 세포병리학 교육과 연구를 이끄는 대표적 인물이다.



한편,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위원장 신민식)는 국내 세포병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세포전문임상병리사(SCT)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신민식 위원장은 “세포병리사의 정밀한 1차 판독은 암 조기진단과 생존율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수상은 한국 세포병리사의 국제적 역할을 증명한 자랑스러운 성취”라고 평가했다.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



2025년 제1차 NGS 교육 개최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학회장 이건동)가 5월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이틀간 일루미나 솔루션 센터와 함께 ‘2025년 제1차 NGS 교육’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된 교육사업인 이번 교육은 NGS를 배우고자 각지에서 모인 1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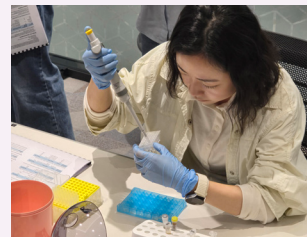


교육은 ▲Illumina DNA Prep with Enrichment with Exome panel 및 illumina new panel 소개 ▲NGS Hands-on(Library Prep, Library QC, Hyb, Enrichment, NextSeq550Dx Run) ▲NGS data analysis 등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Illumina DNA Prep with Enrichment with Exome panel 및 illumina new panel 소개 ▲NGS Hands-on(Library Prep, Library QC, Hyb, Enrichment, NextSeq550Dx Run) ▲NGS data analysis 등 주제로 진행됐다.

일루미나 솔루션 센터와 협업을 통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NGS의 전반적인 실험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뤄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향후 NGS 교육은 이론 교육보다는 실습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는 이번 상반기 교육에 이어 오는 하반기에는 엔젠바이오와 NGS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NGS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젠의료재단-오픈헬스케어, 카자흐스탄서 한국형 국제협진 모델 'PPCC' 본격 운영



질병검사 전문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은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해 2023년 7월 설립한 오픈헬스케어(주)(대표이사 이민철)를 통해 중앙아시아 최대 도시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형 국제협진 모델 ‘사전·사후관리 센터(Pre Post Care Center, 이하 PPCC)’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콕덤 지역에 위치한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는 2018년 개원 이래, 한국과 카자흐스탄 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클리닉·채혈실·원내 약국 등이 있고, 클리닉에는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안과를 비롯한 다양한 진료과에 의사 16명과 약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6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PPCC는 현지 환자의 사전 검사 및 초기 진료를 통해 한국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국내 협력 병원과 연계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치료 후에는 귀국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원격 협진을 제공함으로써,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특히, PPCC를 기반으로 국내 병원은 사전검사 및 초기 평가가 완료된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귀국 후에도 현지 클리닉에서 지속적인 추적 진료와 원격 협진이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의료기관 입장에서 진료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환자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는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고려대학교병원·길병원·한양대 국제병원 등 국내 주요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환자들은 한국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오는 7월,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는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마티 아이제레 지역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약 2,158평) 규모의 신규 센터로 확장 이전될 예정이다. 의료 장비도 최신 기기로 갖추 계획으로, 중앙아시아 최초로 3.0 테슬라 MRI가 도입되고, 256 슬라이스의 초정밀 영상 진단 전산화 단층촬영이 가능한 CT 장비가 카자흐스탄 최초로 도입된다.

오픈헬스케어 박건상 총괄의료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I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카자흐스탄에 도입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 효율적인 한국형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진단검사 기술과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로 질병의 진단과 예방·치료·건강관리까지 카자흐스탄 국민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씨젠의료재단 천종기 이사장은 “재단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라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진단을 넘어 예방과 치료로 확장하는 미래 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7월 25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제509호 당첨자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인터뷰

김미희 회원 / 전화번호 : 29114

임상병리사 출신 의료원장님 인터뷰 기사가 감명 깊었습니다.
정말 임상병리사의 한계는 없다는 것을 몸소 멋지게 보여주셨습니다.
공공의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현장에서 실천하시고 또한 600개 지표로 BSC평
가체계를 구축하고 계신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모든 분야를 세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조직이 더 성장하고 단단할 수 있도록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심에 자
랑스럽습니다.
'발굴하고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며 열정을 가지라'는 멋진 선배님의 당부를 마음
깊게 새기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임상병리사 출신의 탁월한 열정을 가진 오진규 의료원장
님의 취임으로 남원의료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귀감이 되어 전국의료원의
동반 성장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봅니다.

이상희 회원 / 전화번호 : 29103

병원의 원장님들은 다 의사만 가능한 영역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진규 남원의료원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정말 가슴벅찼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마다 임상병리사는 검사 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때문에 지친다는
생각으로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평가를 도맡아서 훌륭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
시고 계속 새로운 도전으로 성장을 거듭하시고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제가 임상병리사라서 자랑스럽고 또한 우리 후배들이 임상병리사라 기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 곧추세우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회원소식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권지연 회장 대덕구 보건소 보건관리팀장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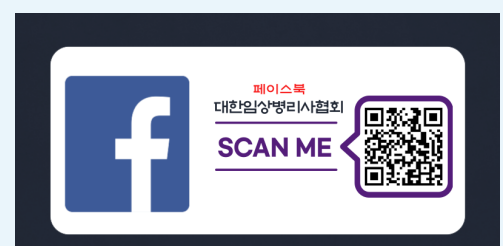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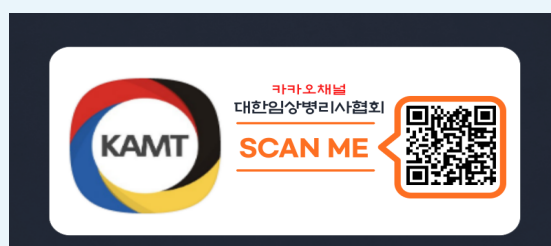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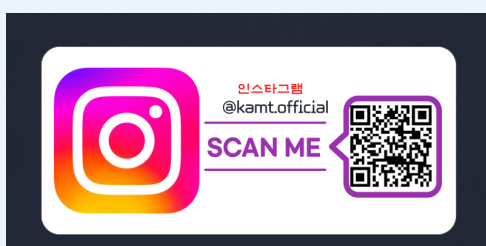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권지연 회장이
7월 1일(화) 대덕구 보건소
보건관리팀장에 발령됐다.

회원분들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보내주시면
협보에서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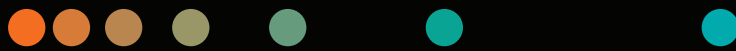


카카오채널 친구추가와 인스타그램 팔로잉 부탁드립니다.

Atellica® CI Analyzer

Integrated Chemistry and Immunoassay Analyzer

siemens-healthineers.com/atellica-ci-analyzer



QR700002239

Small Size. Big Impact.

임상화학 · 면역 검사 통합 솔루션

Atellica® CI Analyzer 장비는 임상화학 · 면역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스템 기능 및 특징점

- 독립적 운용 형태 임상화학 · 면역 검사 동시 수행 – 검체 로딩 위치 동일
- 검체 저장 공간 최대 120 검체 (60 input / 60 output)
- 시간당 검사 처리
 - 생화학 : 1000 tests/hr (일반화학 600, 전해질 400)
 - 면역 : 120 tests/hr
- 시약 장착
 - 생화학 : 총 70개 포지션 (Single & Dual reagent kit)
 - 면역 : 총 40개 포지션 (주시약 20 / 보조시약 20)
- 응급 검체 처리 검체 로딩 후 1분내 검사 시작
- Atellica® Solution과 동일 시약 플랫폼 백업 기능 효과 및 시약 관리 편리성

새로운 소프트웨어 형태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유저 인터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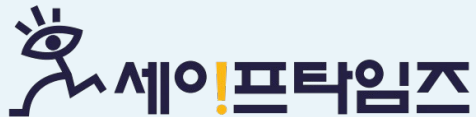
- 앱 형태로 검사실별 특화된 메뉴 구성
- 샘플 관리 추적성 강화
- 환자, 칼리브레이션, QC 결과 통합 관리



6월



PRESS



2025.06.24.

임상병리사협회 'MVEX'서 현장 의료서비스



2025.06.24.

대한임상병리사協, MVEX 2025서 POCT 검사 서비스 실시



2025.06.24.

임상병리사협회, 'MVEX 2025'서 POCT 의료서비스 제공



2025.06.25.

임상병리사협회, 'MVEX 2025'서 POCT(현장검사) 의료서비스 제공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추가 해주세요!

